

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, 안전결의대회 개최와 안전·품질·청렴 특별교육 실시

안춘배 기자 | 승인 2026.03.06 09:31



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안전·품질·청렴 특별교육 후 사진촬영한 모습.

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(단장 박형수)은 지난 5일 사업단 하구둑관리소 대회의실에서 공사감독, 현장대리인, 안전관리자 등 30명이 참석해 '안전결의대회(청렴이행각서 교환)와 안전·품질·청렴 특별교육'을 실시했다.

이날 안전·청렴 특별교육에선 안전관리 5대 분야(중점관리)와 관련해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와 중대재해처벌법, 공사현장의 재해발생 사례 교육으로 사업단 전 직원, 현장관계자들의 재해예방 경각심을 높였고 올해도 재해율 0% 달성을 약속했다.

이어 안전결의대회에선 안전사고 예방 결의문을 낭독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선서했다. 아울러 청렴이행각서 교환식과 청렴간담회를 통해 참석자 모두가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고 각 건설현장에서의 부패예방과 고충·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.

백형수 영산강사업단장은 “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강조하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청렴문화 확산에 공사와 현장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”을 당부했다.



안춘배 기자 acbae@aflnews.co.kr

저작권자 ©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